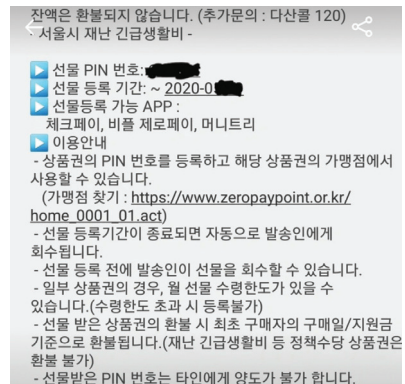


형사처벌 경고에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상품권깡' 여전

중고사이트서 거래...적발시 최고 징역 3년·벌금 2000만원



지역이 잘못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선물하기로 보내드립니다.

■사랑상품권 33만원 입니다.

지역이 잘못되어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로페이 선물하기로 보내드립니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와 앱을 중심으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사고파는 이른바 '상품권깡'이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는 적발 시 관련자 처벌 및 지원금 전액 회수 방침을 밝혔으나, 거래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한 중고거래 앱에는 서울

시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용산사랑상품권'이 판매 상품으로 올라와 있다. 금액도 33만원으로 긴급생활비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긴급생활비 대상자가 1인 가구일 경우 제로페이로 수령하면 기본 30만원의 10%를 더 받아 33만원을 받을 수 있어서다.

판매자는 "지역이 잘못돼 쓰지 못하고 있다"며 "제로페이 선물하기로 보내드린다"고 밝혔다.

동대문구사랑상품권도 판매 중이다. 이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서울시 재난 긴급생활비로 받은 33만원이었다.

서울시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품권도 계속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대구선불카드, 대구지역 은누리상품권, 포항사랑상품권 등을 사고파는 글이 여전히 올라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정부가 배포한 지역 상품권(지역화폐 포함)과 은누리 상품권에 대한 거래를 일시적으로 제한한다는 공지를 올리기도 했다.

일부 중고거래 이용자들은 거래 자체를 요청하기도 했다. 한 이용

자는 "나라에서 저소득층에 준 지역상품권을 취지에 맞게 써달라"며 "지역 경제에 맞게 사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 지원금으로 지급된 상품권을 거래하는 건 모두 불법 행위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재난지원금 등을 목적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거래하면 최고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을 사고팔거나 광고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징역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병과될 수 있는 중범죄"라고 경고했다.

광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원래 취지나 의도와 다르게 이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 돼서 의욕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서 중고거래 사이트에 대해 처벌을 하진 어렵지만, 불법 소지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인 감시활동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윤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어려운 흡연버스 23일 서울 을지로의 한 흡연버스에서 흡연자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대한금연학회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 등 의회계는 흡연자가 코로나19 고위험군인데다 바이러스가 입에서 내뿜는 연기 입자에 묻어 나올 수 있어 밀폐된 흡연 버스를 피할 것을 권고했다. 일반적으로 약 16㎡ 크기의 흡연 버스에서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비말 감염 범위인 2m 거리 두기가 어려운 구조다.

“등교개학 언제하나요?”
코로나로 지친 엄마들의 푸념

정부가 내달 초 초·중·고등학교 등교개학 시기와 관련 지침을 예고하면서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일각에선 선부른 등교개학 결정으로 코로나사태가 재발할 싱가포르의 사례를 들며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현재의 진정세가 이어질 경우 큰 문제가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는 감염병 전문가 협의와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 교원 및 학부모 등과 협의를 거쳐 내달 3일 등교개학 최종 계획을 발표한다. 정부의 범국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안이 5월 5일까지 이어지는 만큼 가장 빨라도 6일 이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전날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등교 개학에 대해서는 이번 주, 다음 주 발생동향과 위험도를 분석해서 교육부가 중대본과 방대본, 각 지자체의 의견수렴을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23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이다. 이로써 확진자 수는 15일째 50명 이하를 기록했다. 정부는 진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통제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지난 9일부터 사상 처음 온라인 개학을 시작했지만, 경험이 없는 데다 접속 지연 등 예상 못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학습효과도 어느 정도일지 장담하기 어려워 등교개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A씨는 “원격 수업을 하다보니 집중도가 크게 떨어지는 모습이라 붙여야 한다”며 “접속이 안되거나 느릴 때도 있어서 등교개학보다 학습효과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아직 ‘심각’ 단계가 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등교개학이 다소 이른 판단일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이들은 면역력도 약하고 서로 간의 접촉도 많아 자칫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코로나19 모범대응 국가로 불렸던 싱가포르도 지난달 일일 신규확진자수가 50명을 넘지 않자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등교개학을 추진했다가 집단감염이 속출했고 현재 확진자 수가 1만명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상태에서 비슷한 절차를 밟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단신 ●
광주 외국인 집단난투극 4명 구속

이성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으며 광주도심에서 집단난투극을 벌인 카자흐스탄인 4명이 구속됐다.

광주 광안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카자흐스탄 국적 A씨(28) 등 4명을 구속하고, 특수상해 혐의가 있는 아제르바이잔계 카자흐스탄 국적 B씨(23)를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A씨 등 4명은 지난 19일 0시쯤 광주 광산구 월곡동 한 도로에서 아제르바이잔계 C씨(23)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가 있다.

B씨는 같은 날 오후 4시30분쯤 월곡동 한 도로에서 A씨 패거리인 D씨(22)를 흉기로 찌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카자흐인 무리와 B씨 등 아제르바이잔계 무리는 이성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발에만 수 차례 다툰 것으로 조사됐다.

카자흐인들이 재차 양갈음을 하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기동대 소속 200여명을 이들 거주지에 투입해 민원을 대비하면서 밤사이 카자흐인 16명을 차례로 붙잡았다.

경찰은 카자흐인 16명을 붙잡아 이 중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불법체류 중인 9명을 출입국 사무소에 인계했고 나머지 3명은 귀가시켰다.

또 21일 충남 공주, 대전, 광주에서 아제르바이잔계 4명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22일 주립 격인 B씨를 부산에서 붙잡았다.

고흥서 강풍에 맞출 끊긴 어선, 암초 지대에 얽혀

22일 오후 4시쯤 전남 고흥군 금산면 금진항에 정박 중인 4.97톤급 어장관리선 A호가 강풍에 밀려 연안 암초 위에 얽혔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녹동파출소 순찰팀과 구조팀을 현장에 보내 구조작업을 펼쳤다.

해경은 배 밑바닥에 워들스티로폼으로 보강작업을 실시하고, 오후 5시20분쯤 이초작업을 완료했다.

A호는 이날 최고풍속 12m/s의 강풍으로 맞출 3개가 끊어지며 연안으로 밀렸고, 사고 당시 선박 내에 승선원은 없었다.

여수해경관계자는 “이번 사고로 해양오염 등의 피해는 없었다”며 “강풍이 불 때는 맞출 등 선박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등산 중 실종 60대 23시간만에 자력 하산

전남 화순군 백야산에서 60대 등산객이 실종 23시간 만에 자력으로 하산했다.

22일 전남 화순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11분쯤 ‘허리가 아파 자력으로 하산하기 힘들다’는 A씨(68)의 신고를 접수했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과 경찰은 80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벌였다.

A씨는 최초 신고 당시 정상 부근으로 밝혔다가 하산을 하며 소방당국과 연락을 하던 중 휴대전화 배터리 소진으로 연락이 두절됐다.

이로 인해 소방당국 등이 수색에 어려움을 겪다가 22일 오전 2시쯤 수색작업을 중단한 뒤 날이 밝자 232명이 수색을 재개했다.

A씨는 22일 낮 12시45분쯤 등산로변에 있는 식당까지 자력으로 하산했다. A씨는 의상은 없었으며, 저체온증 등을 우려해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여수 돌산리조트 화재 원인...경찰·소방 합동감식

경찰과 소방당국이 전남 여수의 한 리조트에서 발생한 화재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합동감식에 나섰다.

전남 여수경찰서와 여수소방서는 23일 오전 9시30분부터 감식인력 5명을 투입, 전날 오후 발생한 화재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4명과 소방조사관 1명이 현장에 투입됐다”며 “감식결과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DP 인쇄전문기업

(주)남도프린테크

광주광역시 광산구 평동로 803번안길 93-10
TEL : 062)943-0135 ~ 6
FAX : 062)943-0134